Q



임시 주거시설: 20곳 (공공시설, 마을 회관 등) 383명





ON AIR *

길거리서 여성 신체 불법 촬영한 남성, 시민들이 잡았다

입력 2022.02.23 (21:48) | 수정 2022.02.23 (22:05)

 \triangle \triangle <

뉴스 9











[스포츠9 헤드라인]

[앵커]

한 남성이 택시 정류장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이 남성을 제압해 경찰에 넘긴 건 주변을 지나던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이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은색 패딩을 입은 남성이 빨간 불빛이 반짝이는 휴대전화를 든 채 여성 뒤를 서성입니다.

주변을 살피는가 싶더니 휴대전화를 여성의 치마 아랫부분으로 들이밉니다.

길 건너편에서 이 모습을 지켜본 정 모 씨는 불법 촬영임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정○○/불법촬영 피의자 검거 : "그 남자 손이 자꾸 여자 치마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였 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혹시 몰라서 동영상으로 찍어놓고…."]

이 시각 헤드라인

대선 투표율 오후 5시 현재 73.6%… 19대 보다 3.5%p↑

이재명 후보 자택, 지금 상황은?

윤석열 후보 자택, 지금 상황은?

'NLL 월선' 북한 선원 7명, 북으로 송환 …"항로 착오로 넘어와"





많이 본 뉴스

- 1 대선 투표율 오후 5시 현재 73.6%···19대보 다 3.5%p↑
- 2 이 "수천, 수백 표로 결과가 달라져" 윤 "투 표율 기대에 못미쳐"
- 3 "경북·강원 산불 났는데"···'제주들불축제' 어쩌나?
- 4 [특보] 이 시각 산불 상황과 바람 전망
- 5 '아이폰SE3'·'아이폰13 그린' 공개····시장 평가는?
- 6 'NLL 월선' 북한 선원 7명, 북으로 송 환···"항로 착오로 넘어와"

정 씨는 휴대전화로 범행 장면을 찍은 뒤, 이 남성에게 다가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붙잡았습니 다.

정 씨 전화를 받고 인근에 있다가 온 일행 중 한 명은 이 남성의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남성은 처음엔 불법 촬영 사실을 부인하다가, 결국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네가 찍은 거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해야지!) 네, 죄송합니다."]

[안재진/불법촬영 피의자 검거 : "계속 휴대전화만 계속 달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휴대전 화를 주면 지울 것 같아서 일부러 안 주고 그냥 계속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경찰한테 휴대 전화를 줬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확보한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할 예정입니다.

불법 촬영 적발 사례는 재작년을 기준으로 한 해 5천 건이 넘습니다.

경찰은 불법 촬영의 특성상 피해자가 범행 사실을 알아채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주변 시민들 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한효정

■ 제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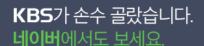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여론조사 결과를 포함해 대선 관련한 다양한 뉴스 콘텐츠를 KBS 대선 특집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 9 전체보기







오늘의 HOT클릭!













도…선관위 "모두 유효표"





뽑는 대통령 "투표했어요~" 다…누적 500만 명 넘어서



데"…'제주들불축제' 어쩌나?

'아이폰SE3'·'아이폰13 그린' 공개…시장 평가는? 울진·삼척 산불 엿새째…전체 진화율 70%

[영상] "특정 후보 연상시킨다?" 투표 도장까지 바꾼 사연 피치, 러시아 신용등급 C로 강등…"국가부도 임박" 중국 매체, 한국 대선 각별한 관심···"누가 이기든 한중관계··· '정확하고 재미있게'···미리 보는 KBS 개표방송

지역뉴스

울산 창원 진주 대구 안동 포항 광주 목포 부산 전주 대전 제주 순천 청주 충주 춘천 강릉 원주

뉴스 아카이브 ▼

KBS소개 ▲ 시청자권익센터 사이버 감사실 광고 이용약관 법적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

KBS N 채널 ▲ KBS WORLD A

KBS / 072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여의도동) / 대표전화 02-781-1000 / 기사배열 책임자,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은정 KBS뉴스 인터넷 서비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KBS미디어센터 / 시청자상담실 02-781-1000 / 등록번호 서울 자00297 (2010년 6월 23일)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